



**에버랜드, 프랑스 파리 테마공간 마련**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5월을 맞아 14일부터 에버랜드에 야외 로즈가든을 프랑스 파리 테마 공간으로 꾸민다고 6일 밝혔다. 에버랜드는 최근 무착륙 관광비행 등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기분을 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에버랜드에서도 이국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힐링과 휴식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삼성물산



**중기중앙회-하나카드, 소상공인 지원 맞손**

중기중앙회와 하나카드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노란우산 가입업주 대행은 하나은행, MG새마을금고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카드업계 중에선 하나카드가 처음이다. (왼쪽 5번째부터) 권길주 하나카드 대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LG하우시스, 신한카드와 카드 출시 협약**

LG하우시스는 6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LG지인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강남점점에서 LG하우시스 강계웅 대표,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Z:IN 인테리어 카드 출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LG하우시스 강계웅 대표(왼쪽)가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하우시스



**NH농협생명, 지역사회 나눔 ESG경영 앞장**

NH농협생명은 '사회공헌 애쓰자' 실천을 위해 지난 4일 대표이사 및 임직원 25명과 '함께하는 마을'인 경기도 여주시 도전4리를 찾아 농가일을 도왔다. 김인태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세번째), 이병길 여주농협 조합장(오른쪽 네번째), 마을주민 및 농협생명 임직원인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생명



**롯데홈쇼핑, 독거노인에 '건강백세꾸러미' 전달**

롯데홈쇼핑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4일 영등포 지역 독거노인 140가구에 '건강백세꾸러미'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홈쇼핑 윤지환 마케팅부문장(왼쪽)과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박화선 사무국장이 지난 4일 '건강백세꾸러미 나눔'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로트(Lot) 518'이라는 와인이 있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 와인을 만든 와이너리는 아마 와인 애호가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바로 호주의 국보급 와이너리 펜폴즈다. '펜폴즈 그랜지'는 호주 국가문화재로 등재돼 있을 정도다. 로트518은 호주의 이름난 와이너리가 중국 고객들을 위해 내놓은 주정강화 와인이다. 와인병에도 대나무가 그려져 있다. 주정강화 와인이란 와인에 주정(증류주)을 섞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이다. 보통은 포도를 증류한 브랜디를 사용하는데 로트518은 중국술인 바이주(白酒)를 섞었다. 와인 전문가가 아닌 와인 초보자가 봐도 와인과 바이주의 조합은 미스매치다. 바이주는 수수 등을 누룩으로 발효시킨 증류주다. 주정강화

**외교전쟁에 새우등 터진 와인**

와인의 주정으로 쓰기엔 특유의 독특한 향이 너무 강하다. 펜폴즈는 로트518을 내놓으면서 공식적으로는 '전통적인 와인 제조의 관습을 깨뜨린 혁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누가 봐도 중국에 보내는 격한 애정표시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호주와인시장의 가장 큰 고객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중국은 매년 호주 와인 총생산량의 40% 가까이 수입했다. 허니문 관계가 깨진 것은 지난해 중국과 호주가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다.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중국은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호주산 농산물과 소고기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 와인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고 최고 200%가 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와인 같은 주류는 세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와인 가격이 경쟁력이 없는 것도, 홍콩

의 와인 시장이 급성장한 것도 다 세금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초 프랑스 와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5%의

정별적 관세로 작년 미국의 프랑스 와인 수입은 18%나 줄었다. 관세 수준도 그렇지만 이번과 같이 경제 보복의 희생양이 됐다면 단순히 관세부과로 높아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 실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호주산 와인 수입 제한으로 지난달 선전항에만 8000리터가 넘는 호주산 와인이 압류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주의 대중 와인 수출규모는 이전 대비 96%나 급감했다. 누군가의 위기는 다른 이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법. 호주의 와인 산업은 위기를 맞으면서 세계 최대 소비처인 중국시장을 노리는 곳이 많아졌다. 첫번째 수혜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남아공 와인은 중국과 호주의 외교 전쟁 이후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졌다. SCMP에 따르면 중국으로의 남아공 와인 수출은 지난 석달 동안 50%나 급증했다. /펜폴즈닷컴 /smahn1@metroseoul.co.kr



Lot.518 와인. /펜폴즈닷컴

**LG전자, 러시아서 헌혈 중요성 알린다**

**VOD 플랫폼사 IVI와 손잡고 '라이프 이즈 굿' 캠페인 펼쳐**

LG전자가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헌혈 전도에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라이프 이즈 굿' 캠페인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VOD(video on demand) 플랫폼 회사 'IVI'와 손잡고다. LG전자는 러시아 지역사회에 헌혈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러시아 시민들은 물론 우주 비행사, 영화감독, 배우 등 현지 인플루언서도 헌혈에 동참했다. LG전자는 행사에 참여한 인플루언서들이 각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LGLifeIsGood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한 콘텐츠 덕분에



LG전자가 러시아의 대표적인 VOD(video on demand) 플랫폼 회사 "IVI"와 손잡고 모스크바에서 "라이프 이즈 굿" 캠페인을 펼쳤다.

MZ세대를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앞서 LG전자는 러시아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2009년부터 100차례 이상 헌혈행사를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KT 인사동 전통물품 담은 '사랑의 효박스' 판매**

KT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랑의 효(孝)박스' 활동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사랑의 효박스는 KT의 사랑의 시리즈 일곱 번째 프로젝트다. 사랑의 효박스는 서울 종로구 꽃집, 인사동 전통 물품을 담아 만든 패키지 상품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화분, 전통 꽃자수 마스크, 전통 자수 용돈 주머니, 미세먼지 필터 등 가족에게 선물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4종 물품으로 구성됐다. 회사와 직원이 각 1만원씩 구매 비용을 부담한다. KT는 오늘부터 이를 간 나눠정(情) 앱을 통해 사랑의 효박스 2000개를 임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인근 독거 어르신에게 200개의 효박스를 기부한다. 나눠정 앱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만든 KT의 착한 소비 플랫폼이다. KTESG경영추진실장 이선주 상무는 "KT는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랑의 시리즈'로 나눔실천과 함께 KT만의 차별화된 ESG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

**SPC그룹, 결식아동 300명 식사 지원**

SPC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인 SPC행복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결식아동 식사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한국 월드비전과 함께 비대면 고객참여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되는 '주말에 뭐 먹니?' 캠페인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객이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해피앱)을 통해 '좋아요' 또는 '댓글로 응원' 참여를 하면, 1건당 1식을 적립하여 SPC행

복재단이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캠페인 종료 후 전국의 결식아동 300여명에게 4주간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주말에 먹을 수 있는 SPC그룹 식사용 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SPC행복재단은 파리기프트 가맹점과 지역아동센터가 1:1 결연을 맺고 케이크를 지원하는 'SPC해피퍼스테이파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500여 곳의 아동보육시설에 생일케익을 선물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사랑의 효박스. /KT